

(최우수) 꿈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고승호

이 책의 도입부는 우리에게 나라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대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명 우리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도망자가 되어야 했다. 대부분이 도망자의 삶을 수궁하거나, 누군가는 조국을 빼앗는 편에 서서 파렴치한, 그러나 풍족한 삶을 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꿈을 꾸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국이란 어떠한 의미였을까. 김신의 아버지이자 나라를 지독히도 사랑했던 김구의 말 중 일부분이다. “나라 사랑은 기쁠 때,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못 참을 때에도 해야한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국은 ‘꿈’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한평생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못 참을 나날이었을 이러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꿈’이다. 그리고 이들의 꿈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공군군관학교 입학에서부터 중동지역, 미국에 이르기까지 김신은 더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종사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단 한번의 그 마음이 동요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그것이 꿈이어서이다. 이후 김신에게 조국에서 비행할 기회가 찾아온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L-4라는 비행기, 천으로 만들어진 이 비행기는 거의 글라이더 수준으로 지금의 누군가가 보면 비웃음거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신이 날개와 동체에 그려진 미군 마크 위로 태극마크를 새겼을 때의 그 벽차오름은 감히 누가 어림잡을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과연 타향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우리 블랙이글스의 곡예 비행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의 감정과 닮아있지는 않았을까.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군복을 입고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그 꿈. 그것은 ‘꿈’으로서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은데 예를 들면 ‘왜 나는 이타적이지 못할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꾸준함이 없을까'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수치심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자아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법을 만들었다. 그중 하나는 이러한 내용이다. '나의 이익은 공공선의 증진으로 한다.' 나는 나의 행동이 나의 만족을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현산하는 자세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런 자세를 통해 다른 사람 앞이 아닌 자신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신념이자 '꿈'이다. 누군가에게 꿈에 대하여 질문하면 단편적으로 되고 싶은 직업 또는 가보고 싶은 여행지 등의 직위, 직책이나 순간적인 행위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꿈이란 그런 것이어서는 안되었다. 나에게 꿈이란 것은 끝이 없는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며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 나를 꾸준하게 고무시키는 것이어야 했다. 즉, 나는 작게는 내가 속해있는 지금의 이 공동체, 크게는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김신, 그도 그렇지 않았을까. 조국의 하늘을 날겠다는 그 꿈이 사실은 정말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못 참을 때에도 버티고 버텨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바로 그때마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조국의 하늘을 날겠다는 김신의 그 꿈이 단편적으로 하늘을 나는 그 순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말자'와 같은 꾸준하고 고무적인 신념과 같은 것이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신념 앞에 애석하게도 6. 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찾아왔을 땐 어땠을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갓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했지만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조국의 땅 위에서 비극의 서막을 열어야만 했다. 민족이 갈라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애국이란 말인가. 김신은 다시 한번 조국의 하늘을 비행할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전과 같진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을 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김구와 지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조종간을 움켜진 김신. 그들도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이고 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모두 그 자세는 같아 보였다. 본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걱정

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자세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 분단의 아픔을 함께 겪어온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이 비극의 아픔을 후대에서까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곳에 나의 온전한 의지로 들어온 나는 더욱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바탕으로 자신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준 저자 김신의 책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 감사를 표한다.

(우수) 나는 대한민국에 산다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424기)

이름 : 한동우

나는 이책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이곳 부교대대 생활관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격리기간 중 심심해서 읽기 시작한 책이었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기억에 남는 내용들도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독후감상문을 작성해본다. 우선 당연하게도 애국심에 관하여 느낀 것들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을 배경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0년대 충칭에 자리잡기 까지 고단한 역경을 겪어왔다.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 상하이, 광저우, 창사 등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광복을 도모했다. 그 이전에도 '임정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붕괴 위기를 맞을 뻔한 경우도 있었지만, 김구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어떻게든 유지해냈다. 이것 뿐일까, 친일파의 방해공작 또한 임정 활동에 큰 지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시고 35년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주신 독립투사 분들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그러한 애국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 내용 중, 김신 선배님이 아버지에게 즉, 백범 김구선생님께 애국가 4절 마지막 줄을 한번 더 부르자고 제안한 이유를 여쭙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나라사랑은 마음이 편할때만이 아닌, 괴로울때도 해야한다, 고단할 때에 급변하여 애국하지 않으면 그건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다." 책에 나온것과 글자는 다르지만, 내가 이해하기엔 이러한 의미를 담으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애국심은 일제강점기(1910 ~ 1945)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북은 소련군정, 남은 미군정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속에 김구 선생님은 방북을 결정하셨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한나라, 한 국가가 되기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불가능하다', 이상적인 생각이 지나치다' 등등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무릅쓰고 평양에 가신 김구 선생님의 태도를 저자 김신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기불가위이위지(知其不可爲而之)" '안 될 것을 알면서

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나는 이 구절에서는 큰 감명을 받았다. 조국의 광복이 얼마나 남은지 알아서 독립투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까마득히 멀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루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 하셨던 것이다. 나도 이러한 자세와 정신을 갖추게 되면 못 이룰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여서 미리 포기한 경험은 없는지 다시 과거의 나를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솔직히 독후 감상문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도 부사후 체력검정 3km, 합격 불가능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지기불가위이위지의 정신으로 매일 운동하여 검정에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백범일지를 정독하지 않은 나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김구 선생님의 애국심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내가 또한 느낀 것은 '전문성'의 중요성이다. 어떠한 분야라도 역량을 갈고 닦아 극한까지 이끌어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만큼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자 김신같은 경우엔 항공기(전투기)조종이라는 전문성으로 공군의 최고, 참모총장까지 올랐고 비록 중국에 오래 살아서 그렇다곤 하지만 중국이라는 전문성으로 타이완 대사까지도 올랐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저자를 나는 동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특히나 필자도 언어에 흥미가 많아서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하다가 왔는데, 중국어와 영어에 능한 저자의 모습을 보니 나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러한 전문성 (특히 언어적)과 관련된 것이 바로 견문이라고 생각한다. '견문을 넓힌다'라는 말은 세상 여러곳의 소리를 듣고 또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언어적 전문성을 강요한 이유는, '견'은 가능하겠지만, 언어가 불가하면 '문', 듣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시야각으로 비유하고 싶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풍경을 보면 굉장히 넓게 보이지 않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라는 산을 열심히 타서 그 정상에 오른다면 세상 세레자는 풍경이 더욱 더 넓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나는 리더십을 느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저자 김신이 중국이 아니 정식으로 한국에서 공군 생활을 할 시에, 직접 전장에 출격할 부분이였다. 당시 그는 장교로, 부대를 뒤에서 운영, 지휘만 해도 되는 입장에서 직

접 위험한 전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저자는 “부대전체를 지휘·운영해야 하는 사람이 직접 비행을 나가냐고” 꾸지람을 듣자, 저자가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 부대 내 전사자가 속출하여 자신이 직접 출격해 사기를 높이려던 목적이다. 라고 한 것이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술선수범하여 동료 혹은 부하들을 앞에서 이끌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역할이 리더이고, 뒤에서 명령만 하는 역할은 그저 보스 아닐까? 물론 명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정말 멋진 자세이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기억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상을 적어보고 싶다. 첫째로, 김신의 할머니, 즉 김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모실 생각하지 말고 나랏일에 열중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김신의 친 형 김인이 병으로 고생할 시 김신의 형수가 김구 선생님에게 폐니실린을 구해 달라고 하였지만 많은 동포들이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만 살릴 수는 없다며 거절하는 두 장면이 떠오른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해도, 그것에 백배 천배를 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만큼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 사랑을 으뜸, 최고는 내리사랑, 자식사랑 인 것이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과 그의 모친은 자식보다 나라를 우선시 하셨다.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자식사랑보다 더한 숭고한 애국정신이 전해져 왔기에, 해방이 올 수 있었고 지금의 소중한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가 없는 경우 생기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국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독립투사 분들의 넋을 기리며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 도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한번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도서이다. 특히나 군 관련 종사자들에게 애국정신 강화, 전투력의 증가 등에도 직결 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특히나 더욱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자랑 한마디 하고 감상문을 마치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산다.

(우수)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최윤영

안녕하십니까 공군부사관후보생 242기 최윤영 후보생입니다.

저는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2022년 2월 21일 생활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책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꽂이에 있는 책들의 모든 제목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지방호, 군사지식 및 지휘관리, 조국의 하늘을 날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책들과 다르게 자서전처럼 보이는 이 책을 가장 먼저 펼쳤습니다. 백범의 아들 이라고 쓰여져 있길래 제가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인가 싶어서 흥미롭게 표지를 넘겼고, 저자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는 이 책의 저자가 진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차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했고 역사시간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분의 아들이 썼다는 게 놀라웠고 저는 주저없이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님께서서는 1922년 9월 2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1921년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우리 민족의 큰 위기였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인 김구 선생님께서는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아들을 많이 못 보셨고 쇠약하신 어머니, 연료하신 할머니와 함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사셨을 당사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조종사의 꿈을 가지셨다는 부분을 읽으며 어릴적 느림한 군인을 보며 직업군인의 꿈을 키웠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군인이 되기 위한 후보생으로서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하고 이 글을 쓰고 있어 행복하고 설렙니다. 저자께서는 어릴적 중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창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조선혁명단원 이운환이 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는데,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즉, 저자의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기 보

다는 왜놈 총에 맞아 죽어야지 동포의 총에 맞았다고 꾸짖으셨다가에 저자의 할머니께서는 정말 강인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939년 4월 26일, 저자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인 김구 선생님과 함께 곁을 지키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저자가 인도에서 비행훈련을 마쳤을 때,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자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더 훈련받으라 하셔서 미국에서 계속 훈련받으셨습니다. 첫 단독비행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 남북이 서로 갈라질 것 같자 김구 선생님과 같이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를 하러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1948년 6월 다시 중국으로 가 어머니, 할머니, 형님, 차이석 선생의 유골을 수습하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형님의 유골을 배산임수의 좋은 자리에 모셔서 그나마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 1999년, 할머니와 형님의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애국지사 제2묘역에 나란히 모셨고, 며칠 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시켜 드렸다고 하시니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8월 23일, 저자는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없었고 육군이나 해군에 소속된 육군항공대, 해군항공대가 있어서 육군항공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미군이 쓰던 L-4 항공기를 받아 미국 마크를 수정하여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를 타고 날았을 때 정말 꿈만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서 저자는 또 한번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 김구 선생님의 기일인 6월 26일이 다가와서 제사를 준비하려 1950년 6월 25일 장인어른과 아내,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가셨습니다. 그 날은 6.25전쟁 발발일 이었습니다. 운전 조수였던 김시열 님이 인천까지 저자를 찾아와서 전쟁이 났다고 급보를 전했습니다. 저자는 가족들을 금화장으로 보내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무스탕 조종술을 배운 저자는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께 보고했고, 김정렬 장군은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한 후 저자에게 자신과 같이 수원비행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가족들에게 설명 후 수원비행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수송기를 타고 일본 이타즈케 미 공군기지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1950년 7월 2일 무스탕 전투기를 몰고 대구로 가셨

습니다. 저자께서 우리나라 공군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6.25 전쟁 중 미군 폭격기들이 철교를 끊었는데 계속 적의 군수물자가 남으로 내려가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밑에 작은 철교를 하나 더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재출격했지만 적의 고사포탄이 너무 많이 날아와 철교들 부수지 못했는데, 저자는 기존 폭격전술에서 고도를 절반으로 낮춰서 폭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월 15일 오전 F-15 두 개 편대 여섯 대가 출격해 새로운 전술을 펴 철교, 주변 대공포 진지, 병커, 건물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활약덕분에 적의 보급로 요충지를 파괴했습니다. 판문점 북쪽 적의 탄약고를 폭격하는 작전을 완수하고 복귀하던 중 저자의 비행기 날개에서 연기가 났는데 인민국 지역을 빠져나오기 전이라 비행기를 놓지 않고 저속비행하며 부하들을 돌려보낸 후 여의도 비행장에 비상착륙했고, 부대장만 돌아오지 않은 강릉 비행장에서는 이 사실을 대구에 있는 공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저자도 여의도 비행장에서 무사착륙했다는 연락을 했지만 공군본부로 소환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지휘관이 왜 자꾸 출격하냐고 화를 내며 저자를 공군 본부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대장이면서도 직접 출격한 저자의 마음과, 부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공군참모총장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저자께서는 공군참모총장직을 욕심내지 않으셨는데 참모총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국방부장관께서 저자에게 공군참모총장직을 맡기셨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된 후 저자께서는 공군 본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공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관행을 삭 다 없앴으며, 경호사병, 운전병, 자동차, 군대 전화 등을 모조리 공군본부로 돌려보내셨다는 내용을 읽고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저자께서는 주 중화민국(타이완) 대사를 부임하셨습니다. 대사가 되신 후에도 가오슝한국소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해 우리 교민들을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조종사가 조종하는 미국 U2기가 북한까지 정찰했다는 것을 알고는 타이완 공군본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있으니 타이완도 협조하라고 하여 북한

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저자께서는 이 사실을 혹시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보당국과 관계자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으로 공화당 용산 지역구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서하셨습니다. 그 후 아내분께서 지병이 악화되셔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저자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자를 교통부 장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저자는 교통부 장관이 된 후 “철마는 달리고 싶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모든 차들을 고속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박정희 대통령님과 육영수여사께서 시승식을 하시기로 했는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노린 총탄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습니다. 저자께서는 교통부 장관 이후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셔서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 여·야 가리지 않고 맡은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시다 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셔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셨습니다. “공작과 술수와 충돌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라고 하신 걸 보면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의 복잡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휴식을 취하시다가,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이 되셔서 초대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신 안춘생 장군님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저자께서는 김만철씨 일가의 탈북 때 비밀리에 타이완으로 가셔서 일을 잘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 이것만으로도 저자의 삶이 굉장히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굵직한 부분을 차지하시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해 사신 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님, 마찬가지로 아버지보다도 더 강직하신 할머니님의 영향으로 저자께서도 개인의 욕심이나 주위의 회유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사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고 감명 깊은 부분은 307 페이지에 있는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내

가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가 나에게서는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잘 보여주는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국헌신의 마음과 국군의 사명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이상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독후감상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조국의 하늘, 나의 하늘

소속 : 부산관교육대대 부산관후보생(242기)

이름 : 박연주

역사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궁리하느라 열심히 여러 모법적인 대답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만큼 진중하고 무거운, 조금 더 과장하자면 엄숙할 수도 있는 중요한 화두다. 역사라는 건 오랜 시간동안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그 깊이 또한 정진해나갔다. 옛 선조분들 또한 역사를 매우 중하게 여겨 후대까지도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여러 기록물을 남기셨다. 나 또한 역사를 공부하며 꼼꼼이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해보자면 “잘 닦아놓은 아스팔트 도로”이다.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생각은 그렇다. 현대를 살아가는 의대생이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을 보고 배우는 것,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옛 형법 등을 보고 배우는 등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머나먼 시절, 선조들이 잘 다져놓으신 기반이 있기에 현재 문명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도 공군 부산관 후보생으로서 한 회고록을 읽고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 바로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내신 김신 장군님의 <조국의 하늘을 날다>이다 (이하 작가로 지칭)

작가는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구와 어머니 최준례 사이 둘째였다. 작가의 어머니는 출산 시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곧 운명을 다하셨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조모의 손에서 자란 작가에게 아버지란 너무나 먼 존재였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중대한 일을 도맡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고작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김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작가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셨다고 한다. 그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에 떠난 수학여행에서 본인의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것을 발견한다. 다름 아닌 비행기, 그리고 펄럭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경을 쓴 비행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놀라움과 충격을 받은 작가는 이윽고 결심한다. 비행사

가 되겠노라고.

국내상황이 워낙 불안정했기 때문에 작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중국식 이름으로 바꾸어 자신을 숨겼다고 서술되어 있다.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남연합대학 선수반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한 뒤 정과에 들어갔다. 그 후 시험에도 합격해 공군군관학교라는 곳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비행을 배우게 된다. 작가의 상황은 이때부터 좋지 않았다. 형의 병세와 죽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조모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수 없었고 작가는 비통한 심정으로 장례를 준비했다고 서술했다. 여느 위인 분들처럼 김신 장군께서도 분명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것을 딛고 극복하신 경험들을 하나 하나 신중히 살펴 읽어보니 그때의 그 심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힘든 시기를 보내본 적 없는 나에게 참으로 새로운 기분이었다. 회고록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지만, 그 인물의 감정에 동화되어서 그 시대에 함께 녹아드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갈래 같다. 어려운 시기에 독립운동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된 시절을 보냈을 작가의 기분이 이해 되는 듯 했다.

국내에선 활동이 어렵기에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서 배행을 배웠다. 작가 또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꽤나 긴 세월을 중국에서 보냈다고 한다. 킨밍비행장 등 큰 규모의 비행전대를 옮겨 다니며 조국의 하늘에서 날기 위한 과정들이 인상 깊었다. 작가는 곧 인도로 비행을 떠난다. 중국 정부가 인도에서 조종사들이 초등 비행 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중국에서 훈련을 마친 학생들을 곧바로 미국으로 보냈더니, 열에 일곱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영어도 물론 문제였지만 생활환경의 차이도 크게 작용했다. 미국인들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중국인 대다수는 자동차마저도 타보지 못했다고 서술되어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체면 때문이라도 인도에서 초등 비행훈련을 시킨 뒤에 미국 본토로 보냈다. 그렇게 한 뒤로는 과연 조종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작가가 라호로 기지(인도)에서 비행훈련을 마치고 미국본토로 갈 준비를 하던 작가는 별안간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된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광복은 타지에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작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한시라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인도에 와서 초등 비행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이미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지만 미국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작가와 동료들은 그 계획의 마지막 대상으로 미국에 가게 됐다. 이 부분에서 장군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고 싶었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았지만, 강제로 다른 나라에 훈련 받아야 했던 그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 역시나 장군님께서서는 다르셨다. 아버지 김구를 먼저 걱정하여 모시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라가 수립되어도 너 같은 인재가 양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 거기서 공부를 끝마치고 오거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 뜻을 받아 작가는 또 다시 비행훈련에 몰두하게 된다.

책의 뒷부분에는 작가의 일생이 더욱 흥미롭게 적혀있었다. 그 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의 만남, 북한의 김일성 위원장을 만난 것, 한강 다리 밑으로 배행기를 통과한 것 등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북한으로 넘어간 일화 중 김구 선생님의 연설에 대한 대목이 흥미로웠다. 김구 선생님이 연설할 때 광복이 되기까지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은 얘기, 남쪽이든 북쪽이든 삼천만 민족이 똑같이 일본의 참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민족이 잘 단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다. 김구 선생님께서 남쪽에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반대한다고 언급하자,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줬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북쪽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자, 어번에는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르 정도로 고요해졌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작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비통했다고 한다. 통일을 위해선 소련도 미국도 아닌 우리 동족끼리 해야한다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을 보고, 통일 정부를 세우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는 대목이 있다. 나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남쪽에 단독정부를 건설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며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은 찬성한다? 굉장히 모순되었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으며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힘든 시기를 보낸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며 늘 느끼지만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번 회고록 또한 내 일생과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 책이었다. 미래의 공군인이 될 나로서도 꼭 읽어봐야할 책이었고, 뜻깊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다. 장군님의 가치관과 말씀들을 늘 되새기고, 또 기억날 것이다. 시선을 올리면 보이는 나의 하늘, 조국의 하늘을 위해.

(장려) 대한민국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정학준

언제나 그래왔듯이 책은 나에게 뜻밖의 선물처럼 다가왔고 특히나 이 책은 현재 나의 위치, 목표, 상황,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성경과 같이 신념을 확고히 잡아줄 수 있게 적재적소로 찾아왔다. 이 책의 저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의 회고록이고 단순히 회고록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와 흐름을 읽고 지금의 공군이 있기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신, 노력이 담겨있는 책이었다. 저자는 운명적으로 하늘을 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백범 김구의 아들로써 태어나서부터 근현대사를 모두 겪고 지금의 공군이 있기까지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 국민 중의 한 명이었고, 그 길은 절대 순탄치 않았고 매일이 치열하고 살아가면서 당장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험난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책을 읽는 내내 알 수 있었다.

초반부의 백범 김구는 '전 죽어도 임정 문밖엔 안 나갑니다'라며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며 나이 오십에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았다. 죽어도 우리나라의 독립밖에 모르는 백범 김구는 가정이 소중하지 않아서 죽어도 임정 문밖엔 안 나간다고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피눈물을 머금으며 자기의 신념을 위해 조금은 가족을 차선에 두어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하여 지인, 친구, 부모님, 심지어는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포들까지 외면해야 할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신념을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50줄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어머니도 아들과 다른 뜻은 없었을 것이다. 아들과 같이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 했고 그 정신에 맞게 강한 사람이라고 책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본이 빨리 망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

시고 일본 정무국에 맞서 거침없이 화를 내며 혼절까지 할 정도로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분노를 쌓았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억울한 분노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다. 그런 한이 쌓여 맺히신 건지 폭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동포들의 호의를 받지 않고 손자들을 키우며 아들의 뜻을 위해 험난한 인생을 버티셨다. 어렸을 때부터 배고프고 궁했어도 다른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 안 하시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저자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렇듯 할머니의 강한 정신력과 아버지의 굳센 신념을 어려서부터 봐오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헌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마침 김신 선생은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미림비행장에 가서 펄럭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경을 쓴 비행사의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놀라움과 충격으로 비행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 신이 있다면 김신 선생에 운명이라도 정해준 듯 김신 선생의 꿈은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게 김신 선생은 조종사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비행훈련을 받는 와중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지만 선견이 있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비행교육을 마쳤고 6.25 전쟁부터 해서 공군참모총장까지 맡으며 나라의 안보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셨다. 3대가 극한의 시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 헌신은 지금의 우리나라 안보를 자리잡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은 영광으로 남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아 나는 그저 선대 독립운동가분들이 닦아 놓으신 길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군에 입대해 후보생 신분으로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극한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도 해보고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चु고 배고프고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발이 까지도록 뛰어다녔을 분들의 노고를 감히 체감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면 책에서 저자인 말대로 변질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나라고 저 상황에서 꺾듯이 독립운동을 잘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한독립'이라는 희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외로운 길을 걸

으신 분, 영화 '람보'의 주인공처럼 가족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않고만이 전장에 우뚝 서서 적을 향해 기관총을 갈기고 인생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셨을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정신만이 희망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헌신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애국애족이란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였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난 가끔 그럴 때가 있다. 18:00에 노을 지고 있는 하늘을 바탕으로 태극기를 보면서 경례하는 순간 가슴 한켠에 몽클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온전히 감성도 이성도 아닌 괜히 가슴을 뜨거워지지만 머리로는 난 대한민국 군인이다를 되내이며 뜨거워진 가슴을 엄숙단정하게 식힌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역사왜곡을 당하는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게 되어 짝 움겨지게 된다. 심지어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런 것이 애국애족의 정신이 아닐까 하며 난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자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군인의 길을 걸었었고 나도 다르지 않았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하기에 강한 군인이기 이전에 강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가족과 친구들을 잠시는 멀리하고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담보만이 결국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나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부모님, 친구들, 사랑하는 것들을 잠시는 내려놓고 나비가 될 애벌레처럼 후보생에서 하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 책을 읽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통하여 한민족의 단합력을 보여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나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군인 중에 한 명이지만, 꼭 이름을 알리지 않더라도 그저 내 소명을 다 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면 그걸로 되는 것이었다.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순간들도 있었고 승호리철교작적을 읽으면 대한민국 공군 위상에 감격하기도 했다. 가슴 아픈 기억들이지만 전쟁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으며 긴장하

고, 훈련하고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후감을 쓰면서 내가 계속 '강함'에 집착함이 느껴졌다. 결국 강해지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데 무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알 수 있었고 우리는 지난 아픈 과거를 통해 강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많은 선열분들이 대한독립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했고 근대부터 현대까지 인생을 대한민국의 이룩을 위해 헌신하신 감신 장군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나도 자주국방을 넘어서 최고국방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죽음을 무릎쓰고 임무를 완수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이 통일이란 희망을 가지고 수호한다면 그것이 선열분들의 노고를 기릴 수 있고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후보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다. 지금 후보생들에게 또는 후보생이 될 친구들이 읽고 앞으로의 군생활을 하는데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려) 김신 행동 생각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남태우

이 책에 주인공 김신에 대한 삶을 가볍게 알아보고 김신의 삶에 대한 제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이 살던 시대는 제2차 세계 대전과 중일전쟁, 항일독립전쟁, 중국의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 러한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전쟁 속에 폐허가 되었을 때도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며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 선열 들의 고생을 보고 오며 힘들게 살아왔으며 한국 공군의 창설과 초기발 전에 참여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참모총장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주 중화민국대사와 교통부장관으로도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도 곧 대한민국의 간부가 되었음에 본받을 점과 지향해야겠다 생각한 점을 서술할 생각입니다.

우선 멸사봉공의 직업관에서 '전문과 창의'라고 한때 군인이 책이라도 들고 다닐 시 근무에 불성실한 태만한 사람이라 오인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군인은 공부에 소홀히 해선 안 되며 간부가 될 사람을 더욱 더 항상 병사들이나 후배들에게 공군의 핵심가치 중 전문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교육훈련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김신 역시 조종사들에게 영어 기호부터 가르치려 했으며 참석률을 높이려 했는데 부하들이 언제 전쟁 중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영어를 왜 배우냐는 불만에도 부하들의 시야를 넓히려고 영어를 가르치려 했으며 이 점에 대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김신은 자신이 직접 비행을 해서 나중에 자신의 비행으로 과일럿이 생겨난 것처럼 자신이 어릴 때 일본 육군항공대 미림 비행장을 견학하면서 비행사의 모습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키운 것 같이 민간인에 대한 군인의 자세로서 항상 모험이 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김신은 강릉비행장에서 단체로 천막생활을 할 때 조종사가 전사할 시 같이 동

고동락하던 조종사의 전사로 심기가 일순간 떨어지면 부대장인 김신이 직접 다음날 출격하는 걸 알게 된 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고 조직의 가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 또한 국군간부와 국군 장병으로서 조직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김신은 비행기로 한강 다리 밑을 통과하며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이런 구절을 보고 어린 시절부터 일제의 억압 속에서 선열들의 희생을 보고 자란 김신으로서 느꼈을 그 마음으로 얼마나 검을지 상상이 되었으며 나도 비록 아직은 부사관 후보생이지만 지금 입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군복, 이불 속의 공군마크, 지금 부사관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소속감 지금의 간부 후보생의 계급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또한, 김신은 일제의 광복 후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에 백범 김구 선생을 처음부터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공군의 발전을 위해 아들을 해방된 조국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겠지만 아들 김신에게 항공교육 훈련은 철저히 다 배우고 오라 하였으며 김신이 아버지 백범 김구의 말을 순응하며 항공교육을 이수하는 모습을 보며 군인으로서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비록 나도 아직은 후보생이지만 임관을 해 내가 받을 특기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익히면 전문성을 갖추어 후배들을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김신이 자신이 해방된 조국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대해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런 모습을 보니 생각이 났으며 김신의 자신의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 역시 향후 군간부가 되었을 때 부하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참군인이 되고 싶다고 느꼈으며 하지만 김신의 행동중에도 잘못된거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아내가 입원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듣고 암이라고처음부터 차마 말하지 못했으며 그저 모르핀 양을 올린 모습을 일고 김신의 마음은 많이 아해하지만 이것을 군대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국군장병이라면 어더한 보고라도신속 정확하게 빨리 상급자에게 보고해야하는 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고 느꼈다. 또한 한가지는 제일 김신의 행

동중 잘못됐다 생각한 사건이 어느사람이 김신에게 중국어도 잘하고 전투기조종도 가능한 사람이니 만주기지에 미그-15기를 전투기를 훔쳐 오라는 작전을 제안했으며 이는 최고 군사기밀이며 오키나와에서 잠수함을 타고 중국 요동반도로 잠입후 시간과 전선, 중국사람으로 위장해서 미그 15기를 몰고 김포비행장으로 돌아온다는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에 대항 비밀을 지키다가 참모총장 임기가 끝나고 타이완대사로 갈 때 열린 환송파티에서 이 작전에 대해 언급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군인으로서 전역후에도 직무수행중 알게된 군사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김신의 행동은 아쉬웠었던 같으며 만일 내가 국군장병이 되셨을 때 반드시 군사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김신은 일제감정기때 제죽주의의 심장을 타격하고자 하는 꿈으로 조종사를 꿈꾸었으며 미공군에서 정식 비행훈련을 마친 유일한 한국인이자 해방후에도 북한의 적화통일의 야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했으며 구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신으로 대한민국 하늘에서 영광을 수호하였으며 부하들을 계속 생각하며 부하들의 교육훈련에도 관심을 가지며 군내 사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단결통 중요시 여기는 점과 김신은 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군의 소속감에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며 이 책의 수입전부를 공군 순직 조종사 유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고자하는 따뜻한 마음 역시 아직은 부사관후보생이지만 미래 자랑스러운 한국공군의 자랑스러운 장병이 될 사람으로서 김신의 자서전을 통해 참된 군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김신의 삶을 나도 이러한 군인이 되겠노라 생각을 들게한 책이었던거 같습니다.

(장려) 김신의 가치관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정 다 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다름아닌 책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 잘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사관후보생이 되기위하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부사관후보생이 되어 격리기간 중 호실에 배치되어 있던 공군인 포켓북을 통하여 김구 선생님의 여러 활동들과 그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주석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마저 내걸고 국내·외로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공군인 포켓북에선 "김구 주석은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군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 협력하여 공군 건립을 추진하였고, 아들 김신(제6대 공군참모총장)등 다수의 한인 비행사들은 중국 비행학교에 위탁하여 양성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아들 김신이 오늘의 본문 '조국의 하늘을 날다'의 저자입니다. 부제를 통하여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써 알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공군인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삶의 과정들과 김구선생님 밑에서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공군인이 되었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본문은 저자 김신의 어린시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이글의 제목처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김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김신은 1992년 상하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김신의 어머니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할머니 손을 덜어드리고자 산후 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세숫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시다 미끄러져 2년 후인 1924년 1월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이 시작됩니다. 김신의 할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아들 때문에 일본군들의 꾸준한 감시와 회유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김신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원로들 또한 할머니 앞에서 꿈쩍을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김구선생님에게도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나랏일을 해야지 어디서 나와 같이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누구보도 사랑하는 아들 일텐데 그런말을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본문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당시 어려움과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김구선생님이 흔들리지 않고 강인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에는 강인한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강인한 김구선생님도 할머니의 죽음 앞에선 많이 무너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집안사정으로 어린시절 할머니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는데 할머니의 노력과 선한 영향력 덕분에 무사히 커서 지금 부사관후보생으로써 훈련을 받고 있기에 한번더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인한 할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신을 수학여행을 통해 조종사라는 꿈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 후 김신은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위해 중국 쿤밍에 있는 공군군관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기본군사훈련등을 마친후 라호르에 있는 공군기지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라호르는 현재는 파키스탄 영토인 인도령이었는데 매우 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으나 악조건을 뚫고 초등비행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정식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던중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신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임시정부도 본국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형님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즉 김구 선생님의 답장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돌아온다니 무슨 얘기냐 나라가 수립돼도 너 같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릴텐데 너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공부를 계속해라" 독립이 이루어졌어도 김구선생님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행훈련으로 인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의 선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하며 싸우지 않았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 길밖에 없었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해야만 했다. 이 길을 따라 전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앞뒤 재면서 나선 길이 아니었다” 김구선생님께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그러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하여 부사관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게 무엇인지 내가 군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신은 육군항공대, 해군항공대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공군에 들어가진 못했으나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마크를 단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를 탈 때 느낀 감동을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신은 수학여행을 통해 조종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어린시절 광저우, 류저우, 충칭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본군의 무차별적 폭격하면서 자신도 공군이 되어 일본을 폭격해 양갓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꿈에 그리던 조종사가 되어 국군에 입대하였지만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훈련을 처음 받았을때부터 아니 일본폭격기의 무차별 폭격을 경함 할 때부터 태극마크를 단 전투기를 몰아 일본 전투기와 맞서 싸워 이기는 상상, 제국주의 일본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꿈을 꾸곤했습니다. 국군에 입대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의 적은 일본군이 아닌 바로 엇그제가지 하나였던 동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그는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기간에 겪은 많은 일들이 가슴 아픈 기억들로 남아있지만 동족상잔의 전쟁 그 차제만큼 가슴을 저며 내는 이픈 기억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나는 공군으로서 많은 작전에 참가해 싸워야했기 때문에 ‘내가 동족과 싸우기 위해 비행 기술을 그토록 열심히 익혔단 말인가’하는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물론 참

략한 적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며 나는 그러한 본분에 늘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그는 비통한 심정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않고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후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그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는 군인들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하면서 돈을 타 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나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그건 관행을 모두 없애 버렸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쓰는 것은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의 신념 때문에 그를 원망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저 또한 너무 존경스럽고 군인으로서 따라가야 할 신념이고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1987년 김신은 김구선생님이 독립이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김신은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급히 필요하니까 늙은 이를 찾는구먼. 이젠 꼭 필요한 나랏일이니까 열일 제쳐 두고 빨리 가야지!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해하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를 불러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저는 그가 이러한 단단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두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단한 신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셨으며 자신의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김신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흘려보내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시절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칠폰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학생들을 초대해 수송기에 태운 뒤 비행을 하였으며 군대에선 자신의 신념에 걸맞는 행동으로, 전역후에도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헌신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출간하여 저를 비롯한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본문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서술했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광복후 분단을 막기 위해 김구선생님과 함께 북으로 갔던 이야기, 김구선생님의 죽음, 이승만, 박정희 정부시절, 대사, 교통부장관 시절 이야기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주요인물들과 사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신의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사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잘 보여주는 역사로서 보아도 훌륭하고 흥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려) 정말로 하나된 조국의 하늘을 날길 바라며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임 한

제가 이책을 읽게 된 계기는 2월 21일 공군에 입대가 결정되고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2주간의 격리생활이었습니다. 초기엔 집에만 있었다가 누나가 확진되고 집으로 와버려서 1주일을 1인격리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격리시작 초반엔 가져온 토익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으나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엄청나게 심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관물대 서랍에 누가 의도적으로 넣어둔듯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조국의 하늘을 날다'였습니다. 마침 읽을 책도 없다 생각하여 읽기는 했지만 재미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김신성생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훌륭한 필력으로 그때 그 상황을 생생히 묘사 하였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역사책에선 볼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기억에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절 있었던 일회와 독립이후 공군에서 근무하였던 이야기 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김신성생님은 어렸셨을때부터 순탄치않은 삶을 살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걸음마를 떼기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인 김구선생님은 늘 위협에 처한 상황이셔서 늘 가족의 곁에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듯이 김신선생님에게도 견학을 가시다 조종사의 멋진모습을 보시고 조종사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중국의 공군인 상태에서 인도/미국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혹독하였는지 입술이말라 비틀어져 벗겨지거나 너무 세계 맞아서 무릎에 멍이 든다던가 엄청난 열기에 병이 나는 동기들이 생기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훈련을 오직 조국의 독립과 조종사가 되리라는 희망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굳건한 도전정신으로 버텨내셨단 것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더해 훈련을 받는 중 조국이 해방되어 드디어 해방되니 조국의 조종사가 될 수 있단 가능성이 생기는 등 그간 하셨던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 한민족이 되기는커녕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서로들 적이라 칭할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심지어 중국이 개입하여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신선생님은 조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기에 탑승하셨습니다. 분명히 전쟁이란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혹은 1시간 전에만 해도 같이 대화하던 전우가 전사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끔찍한 것이지만 김신선생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바라시던 하나로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며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조국에 대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김구선생님만 알고 김신선생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였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신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휴전상태로 돌입하고 김신선생님은 정의로운 공군을 위하여 노력하셨고 타이완대사가 되신 이후에는 한국과 대만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을 때 비록 투표전이라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김신선생님과 대만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쌀을 사와서 식량난을 해결하셨고 교통부 장관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명이 대부분 한자를 쓰나 도로 표지판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 지명표시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자 이를 해결하려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이를 거절하는 지원들에게 그럼 표지판에 적으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표지판의 디테일을 한층 더 올리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조국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김신선생님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공군이 핵심으로 여겨야 하는 가치인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역사책에 안 쓰여진 백범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김구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인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는 답변을 드릴겁니다. 비록 이글은 독서감상문대회 제출용이라 제 또래 친구들이 읽을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며 저희 필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글의 분량이 길지도 않고 내용이 좋은것도 아니지만 더 많

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김신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군 입대를 결정하기 전의 저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입대를 결정하기 전의 저는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며 무언가를 해내고자 도전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었을뿐더러 가족의 소중함은 잊은채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결정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맨몸운동을 한 개라도더하기 위해 이를 꼭 깨물고 하여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첫 번째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몸무게를 키 168cm, 몸무게 78kg에서 몸무게 60까지 조절을 하고 몸무게 60에 골격량을 30까지 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 과정에서 아주 쉽게 사먹던 음식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제가 먹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친 소중한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또다른 변화는 군 입대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저는 체중조절을 성공, 유지하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정도면 되겠노라고 생각하는 매우 안일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대후 동기부여를 받으며 '이 정도로는 동기부여를 못버티고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비록 변화하는 양을 적을지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아까 적은 것처럼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하며 경기도 남양주에서 거의 반대편인 진주까지 오게 되어 혼자 지내며 나와 함께 지내고 밥먹고 자는 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성을 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다면 김신선생님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그리워 하는 모습, 고난을 겪고도 조종사가 되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군 입대 전까지 김신선생님의 삶과 정확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것이라고 맹세하였고 누군가 제게 군입대한게 후회되느냐 묻는다면 저는 나태한 삶을 군입대 결정으로 떨쳐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입대하여 떨쳐냈으니 제게 있어서 군 입대 결정은 짧디 짧은 제 20년 삶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장려) 역사에서 후회란 부질없는 것이다

소속 : 부사관교육대대 부사관후보생(242기)

이름 : 조 은 석

조국의 하늘을 날다 책의 표지에서 이런 글이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 막막한 심정 속에 불안과 외로움에 떨어야 했던 소년 시절과 청년시절" 나는 생각했다. 마치 지금의 나의 훈련기간 동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장난스럽게 생각하던 내가 책을 읽으며 이때 까지의 나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뀌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던 나 자신을 지금 이 감상문을 쓰며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지금부터는 김신, 백범 김구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 2002년 81세 나이로 백범기념관 관장까지 그의 일생을 살펴보자.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베이러루 용칭광에서 김구와 최준례 사이에서 2남이 태어났는데 그 중 동생이 바로 김신이였다. 위로 누이 3명이 태어났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병을 얻어 운명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2남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그 산후 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손수 세숫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고 말아 그 사건 때문에 결국 1924년 1월 1일 상하이 홍커우 폐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살이였다. 김신, 그는 이 그글거리는 잉겔 불을 볼 때면 할머니 생각이 간절히 난다고 했다. 할머니 덕분에 고아 신세를 면하고 한밤중에 깨어 올때마다 말라붙은 젖을 물려 재우고 그래도 보채면 더운 물이라도 먹이기 위해 숯불을 피우셨다고 한다. 물을 다 데우면 숯불을 끄고 다시 깨어나 보채면 젖은 숯에 다시 불을 피워 물을 데우는 등 여간 힘든 일을 할머니께서 혼자 하셨다고 한다.

그가 태어날 무렵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는데 심지어는 일본의 공작에 넘어가 변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극도의 빈곤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꾸리던 할머니는 귀국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1925년 그이 나이 4세 11월에 귀국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안악의 안신학교에 입학하고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4박 5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가게되었는데 이 때 펄럭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

경을 쓴 비행사의 모습을 본 그는 이때부터 비행사의 꿈을 키웠다고 하였다. 또 다른 계기로는 일본 공군이 1937년 난징을 폭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었다. 이후 우한, 창사, 광저우, 류저우, 충칭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을 목격하고 비행기 몇 대에 수 많은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피가 끓고 있는 나도 공군이 되어 일본을 폭격해 앙갚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그가 처음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은 김용대 선생 덕분이었다고 한다. 황해도의 큰 부자였던 김용대 선생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사실상 무일푼으로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하고 어느날 가족을 데리고 사천에 그가 있는 공군기지로 찾아왔을 때 그는 당시로서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김용대 선생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돕고는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엄청 기뻐했다고 했다.

수학여행 이후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사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같은 해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이 의거가 그의 아버지 김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식구들을 중국으로 오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방법이 막막했다. 오만가지 방법과 김선량 목사, 최창한 선생, 그리고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계획을 세운뒤 1934년 3월 19일 안악을 떠나 평양에서 형과 합류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그 후 4월, 상하이에서 기차를 타고 자싱에 도착하고 상하이로 거쳐 난징으로 이동했다. 그러고는 난징에서 소학교를 1학년부터 다시 다녔는데 난징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다중차오소학으로 김자동과 같이 다니고,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이름을 '관신'으로하고 일본 교포로 위장했다고 한다. 그는 다중차오소학을 2년만에 졸업하고 안후이중학에 들어갔다. 이때 일본군의 폭격을 피해 학교구 툄시로 옮겨 갔고, 1937년 11월 난징에서 안공근 일가와 함께 배편으로 유한을 거쳐 후난성 창사로 이동했다. 창사에서는 여러 당파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1938년 5월 7일 회의를 하던 도중 조선혁명당원인 이운환이 뛰어들어 총을 쏘았고, 아버지 김구,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 선생이 차례로 총격을 당했고 현익철 선생은 현장에서 절명하고

말았으며 지칭천 선생은 경상, 아버지와 유동열 선생은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김구는 장세스의 도움으로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총알은 빼내지 못했지만,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거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만큼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1938년 7월 다시 피난을 가기위해 임시정부와 함께 류저우를 출발하여 할머니를 모시고 쓰촨성 충칭에 도착하여 손가회원에 거처를 마련하고 청무관의중양대학 부속 고급중학에 2학년으로 가명인 김신강으로 바꾼후 입학하였다. 충칭에서 고향에 몸도 편찮으신 할머니께서 인후염에 갑상선까지 부어오르는 증상까지 심해 결국 1939년 4월 26일 돌아가시고 만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 이 불효자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강인한 아버지도 모친의 죽음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그의 형님도 충칭의 석탄연기와 저기압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에 습기까지 많아 폐병에 걸려 그의 형님 나이 27세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중양대학 부속 고급중학을 졸업하고 쿤밍에 있는 서남연합대학에 입학하고 재학 중 장티푸스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충칭으로 옮겼다고 했다.

1945년 쿤밍에서 인도령 라호르로 이동하여 비행훈련을 받고 8월 훈련을 마치고 미국 본토로 갈 준비를 하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한다. 그의 입장에서 갑자기 찾아온 광복인 것이다. 그땐 미군과 교육생 할 것 없이 모두 비행기에 올라타 경축 비행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영화상영전 보여주는 뉴스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장면과 중양청 앞에서 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등 그 장면을 보니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고 했다. 그때의 그 주체할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할려는 계획을 세우는 와중 결론은 엉뚱하게 내려졌었다. 바로 학생들은 이미 미국의 군사원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지만 미국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계획의 마지막 대상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다. 1945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랜돌프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온 뒤 난징에서 수속을 마치고 중국 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소련 미그-15기 탈취 비밀임무를 받고 공군 본부 행정 참모부장을 하고 1962년 10월 9일 주 중화민국 대사 신임정 제정, 이후 대사 임무 수행 등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백범기념관 관장까지 이 책을 쓴 주인공 김신의 일대기를 읽고 그 책중 P209쪽 가슴아픈 기억 중 이런 말이 있다. "역사에서 후회란 부질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가 중요하다. 동족상잔을 막기 위한 노력, 갈등과 긴장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다만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군생활에서 후회를 남기지 말자고 후회가있더라도 넘기고 반성하며 앞으로 더 잘해야 겠다는 각오와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 같다. 앞으로의 후배들이, 동기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었다.